

보도자료

★ 5월 4일(목)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3. 5. 3.	학교(기관)명	덕정초등학교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〇〇〇-〇〇〇〇	학교(기관)장	이정선
	팩스) 〇〇〇-〇〇〇〇	담 당 자	사무관 〇〇〇(전화번호)
붙 임	사진(○), 영상(×)		주무관 〇〇〇(전화번호)

덕정이들의 “내 소원을 들어봐”**덕정초 학부모회-이음교실-학생회 어린이날 행복한 등굣길 선물**

*덕정이: 생각과 행동이 반듯한 덕이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정이, 재능과 학력이 탄탄한 꿈을 교육목표로하는 덕정어린이의 애칭

덕정초등학교(교장 이정선) 학부모회(회장 최은영)는 4일 어린이날 101주년 및 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맞아 오전 8시부터 등굣길의 모든 학생에게 행복을 선물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학부모회에서 기획, 준비, 활동의 전과정을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여서 더욱 뜻깊었다.

4일의 등굣길에는 전교생이 자신의 손으로 쓰고 그린 소원종이가 한 줄로 엮여 있어 저마다 자신의 소원을 찾고, 친구의 것도 함께 찾아보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어서 무지개 가랜드를 통과하여 등교한 학생들은 학부모회와 이음교실에서 준비한 간식을 선물로 받았다. 캐릭터 인형탈을 쓴 학부모와 포토존에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모습은 행복한 어린이날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음교실: 교육공동체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업 방해 문제를 해소하여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배움을 잇는 배려와 존중의 교실 문화를 만드는 프로그램.

특히, 중앙정원에서 어린이날을 자축하는 학생회 버스킹 공연이 더해져서 즐거움, 소망, 음악, 그리고 정겨움이 넘치는 등굣길 풍경을 만들었다.

박건률 학생회장은 “매년 다가오는 어린이날이지만, 올해는 저에게 마지막 어린이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즐겁게 등교하니까 오늘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장은 “이음교실 사업과 학부모회의 사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등갯길을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이다”고 말했다.

최은영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학부모회가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준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그리고 선생님, 무엇보다 학생들과 가까워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덕정초등학교의 학부모회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협력하기 위해 교육분과, 도서분과, 연수분과, 봉사분과, 안전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사진 설명]

- ① 4일 오전 전교생의 소원이 한 줄로 엮여 있는 소원종이
- ② 4일 오전 등갯길에 인형탈을 쓴 학부모와 학생이 포토존에서 촬영하는 모습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정초등학교 교사 박춘배(☎010-2852-1638)